

환자 중심의 훌륭한 병원

정주영 아산재단 설립자



서울아산병원 개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설립자(1989. 6. 23)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계획하고 준비해온 서울 아산병원(※개원 당시 이름은 서울중앙병원)이 개원하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1977년 7월 1일 설립된 아산재단은 사회복지시설 지원, 빈곤 학생에 대한 장학사업, 대학 교수들에 대한 연구비 지급,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의 종합병원 건립 운영 등 4대 목적사업을 설정하고 꾸준히 일해 왔습니다.

12년 전인 197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의료시설이 도시에 편중되어 있어 현대적 의료혜택으로부터 소외된 농어민들의 보건·건강 문제는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본 재단은 보건사회부와 협의를 거친 후 정읍, 보성, 인제, 보령, 영덕 등 5개 지역을 선정하여 최신 의료시설을 갖춘 종합병원을 건립하였습니다.

이들 5개 병원은 지금도 재단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지역 주민에게 의료혜택을 주고 있으며, 인근 의료기관에게는 전문 인력과 의료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보건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지방병원을 운영하는 동안 재단의 의료자문위원을 비롯한 의료계 원로인사 여러분들로부터 많은 지도와 협조를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목적사업으로서 의료 복지사업을 설정했던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의료 수준과 비견할 수 있는 모병원이 중앙에 건립되어야 한다’는 그분들의 권고를 받아들여 서울아산병원을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병원은 모병원으로서 각 지방병원의 의료수준을 높여 그 지역 주민들이 최신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동하여 진료를 전

개해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아산재단이 서울아산병원의 문을 열며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서 오랫동안 근무해온 내과학계의 태두 이문호 원장을 비롯하여 국내외의 우수한 석학과 전문가들이 참여해주신 일입니다.

아무리 최신 의료시설을 갖추어 놓았다고 하더라도 훌륭한 의료진이 없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아울러 능력과 경험을 두루 갖춘 우수한 인재들이 우리 병원에서 함께 일하게 된 것을 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방병원이나 이들의 모병원인 서울아산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우리 국민 모두가 다함께 잘 살기 위한 복지사회 건설에 이바지하려는 데 그 뜻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 한 분 한 분이 인간의 건강을 지키는 역군으로서 의지와 사명감을 갖고 병원을 찾아오는 모든 환자와 그들 가족에게 정성을 다하여 치유하고 그들의 고통을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본 재단의 설립 취지에 맞추어 심신장애자, 불우노인과 아동 등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는 이들에게 더욱 친절하게 대하여 인정의 샘이 솟는 훈훈한 병원이 되도록 힘써 주기 바랍니다.

다행히 직원 여러분께서 서울아산병원의 윤리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다짐’을 만들어 환자 중심의 훌륭한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려고 하니 참으로 마음 든든합니다.

불신으로 가득 찬 우리 사회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병원과 환자간의 새로운 인간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믿으며 만강의 찬사를 보냅니다.

끝으로 좋은 뜻을 갖고 출범한 서울아산병원이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도와 격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

※올해는 정주영(1915~2001) 아산재단 설립자의 탄신 100주년입니다.

※이 글은 설립자가 1989년 6월 23일 서울아산병원 개원식에서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더욱 친절하게 대해 줄 것을 당부한 인사말입니다.

※서울아산병원은 서울중앙병원으로 개원한 뒤 2002년 지금의 서울아산병원으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본문의 주황색 부분을 다음 페이지에 점역(點譯)하였습니다.